

민선 제2대 조성윤 교육감 취임사



제 10,11 대 조성윤 (제2,3대 민선)

재임기간 : 제10대 (1997.5.6~2001.5.5)
제11대 (2001.5.6~2002.2.19)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항상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뜨거운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을 민선 제2대 경기도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명식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 협장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 우리 경기교육의 중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전임 한환 교육감님과 역대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이제 교육위원님과 6만여 교육가족의 성원에 보답하고, 850만 경기도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그동안 가꾸어 온 경기교육의 토대 위에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운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본인은 21세기를 살아갈 사랑스런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개인적으로 행복의 요건을 구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번영된 국가, 평화로운 사회, 행복한 국민 즉,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국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은 끊임없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 하에 선진 경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

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경기교육이 지향해 온 주요시책을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진 경기교육 창출을 위한 경기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하여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를 갖추어,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과감히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미래를 대비하는 수준별, 소질별, 특기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실현장 교육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장기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 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소질, 적성,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 특별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은 물론 진로의 조기 개척을 위한 실업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3무 3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명랑한 학교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인사정책 쇄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의 근원은 바로 교육의 경쟁력이며, 이를 위하여 교원의 인사정책 쇄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은 대

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 임용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으며 다수의 뜻이 존중되도록 인사행정 질서를 재정립하고, 장학행정과 인사행정이 동일목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시책을 수립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적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운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교육인구의 수용능력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써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교단 선진화를 추진하고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제도와 시책을 재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과 신뢰로운 학교 풍토에 의해서만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선생님들의 자기 모습, 자기 자리, 자기 할 일 되찾기를 위한 자성·자정운동을 전개하여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특히 제2교원연수원을 건립하여 교원의 연수, 연찬기회를 확대, 교원의 자질 향상을 기하여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21세기와 조국통일에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인 신인력을 육성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교육력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와 조화로운 관계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곡이 되어 교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찾아서 돕는 지원 행정의 구현으로 선진 경기교육을 꽃피우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명식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선진 경기교육 창출을 위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의 경기교육 지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운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본인
의 취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서 취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6일

경기도교육감 조 성 윤

민선 제3대 조성운 교육감 취임사



제 10,11 대 조성운 (제2,3대 민선)

재임기간 : 제10대 (1997.5.6~2001.5.5)
제11대 (2001.5.6~2002.2.19)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 새 천년의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에, 본인을 민선 제3대 교육감으로 선출해 주신 학교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경기도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님과 경기도 의회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경기도 교원단체 대표님, 학교운영위원 대표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협장교 교장선생님과 모든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본인의 임기 중에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기교육 역시 교육예산 확보, 교원 사기진작, 학생 수용시설 확충, 교육격차 해소 등 난제가 산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기교육은 교육가족들의 단합된 힘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 그리고 학부모님,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과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아직 미흡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바라는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170만 학생, 7만여 경기교육가족, 그리고 930만 경기도민들의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함은 물론, 지난

4년간 추진하여 온 경기교육의 안정 기반위에서 『21세기 도약과 창조
의 늘 푸른 경기 교육』을 위해 신명을 바쳐 운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교단을 지켜온 7만여 경기교육
가족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
인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 교육과 창의성 제발 교육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교육의 모든 잠재력을 결집시켜 교육의 본질을 추구
함으로써, 안정 속의 교육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참여 속에, 긍
정적이고 창조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경기교육을 열어가
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이제 본인은 우리의 학생들이 훌륭한 인격을 함양하고 개개인의 잠
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 인적자원으
로서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4년의 임기 동안 추
진하고자 하는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하여 인성과 창의성이 조화된 인재를 육
성하겠습니다.

교육시책 추진의 일차적 목표를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기초학력 신
장에 두고, 모든 교육활동을 통하여 기본을 다져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교육 단계부터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하
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제7차 교육과정을 조기에 정착시켜 기초학
력 신장과 창의성 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초과학교육의 강화와 함께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ICT 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 교육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
다.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업교육을 전문화, 현대화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앞으로의 학교 경영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학교 문화를 가꾸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교육행정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과 연수, 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율경영에 따른 책무성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고, 생동감 넘치는 교단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교원의 높은 사명감과 사기입니다.

이제 교원은 또다시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원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교육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 하며,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교원들이 보람과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세 가지 되찾기」 실천으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연수원 건립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운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는 우선 시급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진력해 왔지만, 교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미흡했던 교육복지 분야도 선진국 수준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 수용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종 교원 편의시설, 휴식시설, 교원사택 확충 등 교원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학습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실 냉·난방의 개선, 정보화 도서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확충하여 적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며, 2002년까지 초, 중, 고등학교 급식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목적 학생복지문화 회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며, 장애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간, 공·사립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선 신도시 신설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와 기존 도시지역 학교를 중점 지원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하여 경기 북부지역이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 지역 교원,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 연수 등 교육기능을 북부지역에서 분산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학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가칭 「사립학교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들의 수업여건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고,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과 특수학교 여건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날 경기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국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모든 교육정책들은 타 시·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늘 푸른 경기교육은 이제 디지털 시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변화하여 도약과 창조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안정적 발전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인성과 창의성

이 조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인은 앞으로 4년간,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욕구와 꿈에 대한 의지, 교육가족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을 한데 모아서 학생들이 넘치는 사랑과 진실한 대화 속에서 미래의 꿈을 가꾸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즐겁게 출근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믿고 맡기고, 학교교육에 동참하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학교운영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님과 도의회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본인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지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마지막 4년의 임기 동안 학생, 교원, 학부모님 모두가 만족하는 늘 푸른 경기교육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명실공히 도약과 창조의 늘 푸른 경기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본인의 취임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늘 푸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7일

경기도교육감 조 성 윤